

## 고려청자의 기종과 특징

이정인 | 303호 청자실 | 18:00~18:30

10세기 고려는 청자와 백자를 제작해 자기磁器 문화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이전 시기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청자와 백자 등을 사용해 자기에 대한 인식과 선호가 있었고, 이처럼 자기를 생산하기까지 된 데에는 삼국시대 이후 중국에서 전래된 차茶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 문헌기록에 따르면 불교의 차 공양이나 승려들의 수행 중에 차를 음미했고, 왕실의 여러 의례 시에 다례茶禮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7세기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차 문화의 유행으로 점차 차 도구의 수요가 확대되어 수입 도자기로 충당되지 않았던 찻그릇을 중국으로부터 자기 생산 기술을 받아 고려 때 제작하고 충당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고려에서 자기가 생산된 초기에는 청자 위주로 찻그릇, 차반침, 접시, 주전자 등 다구의 쓰임새로 여겨지는 주요 생산품이 만들어졌고, 아울러 제례에 쓰기 위한 의례기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반도 중서부 일원의 고려 초기 청자와 백자를 생산했던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가마터,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가마터·용인시 서리 가마터 등지에서 발굴조사로 나온 도자기 파편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자 생산시설은 점차 강진을 중심으로 한 남서부 지역으로 옮겨가‘소所’체제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차 도구 생산으로 시작된 청자 생산은 중국 송대宋代 차 문화의 번성과 고려로 들어온 여러 기종의 다채로운 수입 도자기, 그리고 성숙한 청자 제작 기술로 이전 시기보다 변화하고 발전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초기에 생산했던 그릇과 다른 기형으로 추정되는 찻그릇과 차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누리는 데 필요한 향로 등의 기종이 청자로 만들어져 달라진 시대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입 도자기의 조형을 고려의 미감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청자를 생산해, 12세기 무렵 고려청자는‘비색翡色’으로 중국에까지 칭송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음다용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음식기뿐만 아니라 저장용기, 문방구, 화장용기, 기와와 같은 건축 부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의 청자가 생산되어 화려한 청자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상감象嵌 기법의 청자까지 완성하여 13세기 후반 이후 중국 원元의 내정 간섭에도 고족배高足杯와 같은 기종이나 쌍어문·고사인물문 등이 장식된 청자 등 원 도자의 영향을 받은 상감청자를 생산해 지속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줍니다.

## 전시실에서 낭독하는 자하 신위의 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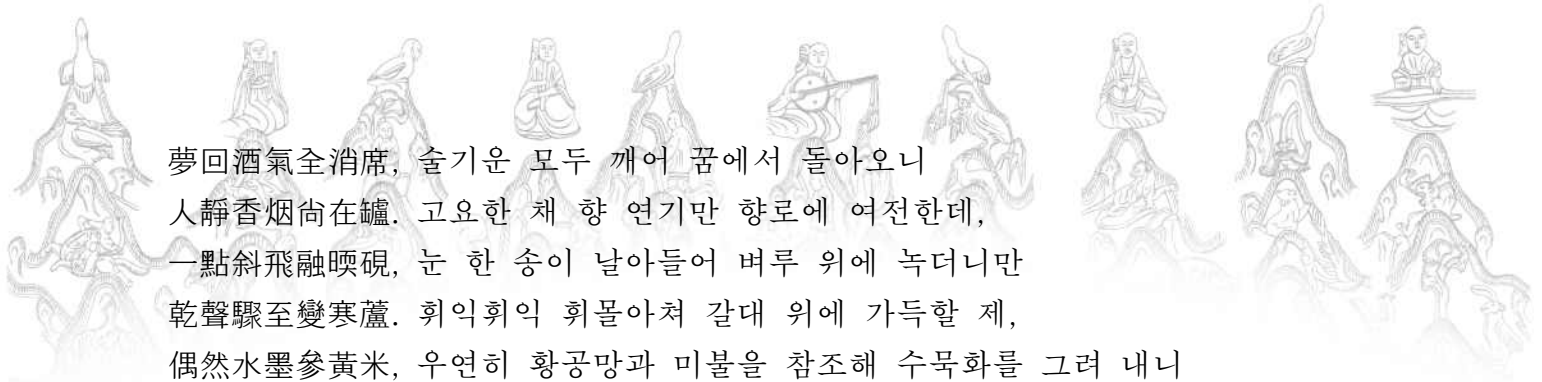
이재호 | 202호 서화실Ⅱ | 18:00~18:30

시와 글씨와 그림은 하나일 수 있을까요? ‘흉중성죽胸中成竹’, 대나무를 가슴 속에 품는 것이 표현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심상을 말로 다듬어내면 시가 되고, 형태로 옮기면 그림이 되겠지요. 자하紫霞 신위申緯(1769~1847)는 19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시·서·화 삼절三絶이었습니다. 신위의 시는 특히 높이 평가되어 두보杜甫(712~770)에 비견되었습니다. 김조순金祖淳(1765~1832)은 신위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묘경妙境에 든 시인이라고 평했고, 김택영金澤榮(1850~1927)은 중국 망명 중에 신위의 시집인 『신자하시집申紫霞詩集』을 간행하며 ‘한번 태어나서 기재奇才를 갖추고 한 시대의 극변極變을 다하여서 쇠만衰晩한 시대에 훨훨 날아오른 대가大家’라 극찬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문학이 시작된 이래, 근대의 격변기를 앞두고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린 거장이라는 뜻입니다. 자하 신위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신위의 시 다섯 수를 함께 낭독하며 고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一邊雪來一邊消, 한 곳에는 눈 오는데 다른 데선 눈 녹으니,  
春陽奮地那由韜. 땅에 떨어진 봄기운을 무슨 수로 감출 건가.  
小兒天機活如許, 어린아이 천기天機가 이처럼 활발하여,  
同一奮陽誰能禦. 봄기운과 한가지니 그 누가 막으리오.  
諸郎賞雪碧梧軒, 아들과 설경雪景 보는 벽오헌碧梧軒 안에서는,  
謝女鹽絮皆陳言. 사씨 집 아이들이 조금 같다, 버들개지 같다 한 비유 모두 진부해졌네.  
我欲借詩評詩態, 나는 아이 시를 빌려 시의 자태 평하노니,  
春雪春雨同靄靄. 봄눈과 봄비가 어우러져 자욱하네.

「장난삼아 어린아이 원경元庚(신명연)이 눈을 읊은 두 구인 ‘한 곳에는 눈 오는데 다른 데선 눈 녹으니’와 ‘봄눈과 봄비가 어우러져 자욱하네’를 첫 구와 마지막 구로 삼고, 나머지를 채워 시 한 편을 완성하다.(戲取小孩子元庚咏雪二句曰‘一邊雪來一邊消’,曰‘春雪春雨同靄靄’爲首尾,足成一篇)」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신수19798)

日脚凝氷風怒呼, 햇발도 얼어붙고 바람 소리 거세지니,  
樓陰山黛合模糊. 누각 그늘 검푸른 산 아울러 어렴풋해.



夢回酒氣全消席, 술기운 모두 깨어 꿈에서 돌아오니  
 人靜香烟尚在爐. 고요한 채 향 연기만 향로에 여전한데,  
 一點斜飛融暝硯, 눈 한 송이 날아들어 벼루 위에 녹더니만  
 乾聲驟至變寒蘆. 휘익휘익 휘몰아쳐 갈대 위에 가득할 제,  
 偶然水墨參黃米, 우연히 황공망과 미불을 참조해 수묵화를 그려 내니  
 驀地神遊訪戴圖. 갑자기 대규戴逵를 찾아가는 그림 속을 노니는 듯

「첫눈 내린 날 술을 마시고 스스로 그린 <황공망이면서 황공망이 아니고, 미불이면서 미불이 아닌 화법>에 쓰다(初雪酒後, 自題黃不黃米不米幀側)」(덕수1626)

漁磯橫斷遠山靑	წყობილია მთის მწვერვალი,
叢水紅 花入小舠	მთვარე მუდმივად ყვითელ ყვავაშია.
冷伴曉風殘月柳	საღამოს ქარსა და მთვარესთან ერთად,
淡藏飛鷺浴鳬汀	ბნელად მალა და მთვარესთან ერთად,
主人未罷江湖夢	მფრინავი ყვავილები და მთვარესთან ერთად,
舫閣如聞魚蟹腥	მფრინავი ყვავილები და მთვარესთან ერთად,
丁字簾前疎 雨歇	მფრინავი ყვავილები და მთვარესთან ერთად,
數枝紅簇可中庭	მფრინავი ყვავილები და მთვარესთან ერთად.

「붉은 여뀌를 노래한 시(紅蓼)」(덕수5318)

一尺鱸 魚換酒眠	한 자나 되는 농어를 술 바꾸어 먹고 자니,
輕舟耐可上靑天	가벼운 배는 푸른 하늘로 올라갈 듯.
半醒半醉欠伸頃	깨어 있고 잠든 사이 기지개 켜 즈음
已泊蘆花淺水邊	이미 배는 갈꽃 핀 얕은 물가에 닿았구나.

「이름 모를 이가 그린 어부도에 쓰다(題無名氏漁父圖)」(덕수2446)

萬事浮雲付一杯	세상만사 뜬 구름인양 한 잔 술에 부치다가
看催歲色且悠哉	저물어 가는 올 한 해 바라보니 아득해지누나!
翁年八十能康健	이 늙은이 팔십에도 건강하여 팔팔하니
不羨麻姑獻壽來	마고선녀가 축수하러 오는 것도 안 부럽지.

「명나라 박명의 마고현수도에 쓰다(題博晰齋(明) 麻姑獻壽圖)」(구10042)



## 고대 무기의 재료

이영범 | 106호 백제실 | 19:00~19:30

무기武器는 전쟁이나 전투에서 살상력殺傷力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인류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 발전하면서 고대 무기의 재료도 변해왔습니다.

특히, 철기 문화의 등장과 파급으로 인하여 청동기보다 단단하고 예리한 농구와 공구,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철기의 본격적인 사용으로 향상된 생산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고대국가 성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대국가 형성기인 삼한 ~ 삼국시대에는 철기의 제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제 무기의 생산력**과 관계됩니다.

**철기 제작방법**은 주조와 단조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무기를 살펴보면 도刀, 검劍, 창, 화살촉, 도끼, 낫 등 다양합니다. 이 중 **도나 검은 주로 단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열처리 기법**을 수행합니다.

이 후 전쟁의 재료로 화약을 기반으로 하는 총·화포, 미사일, 핵폭탄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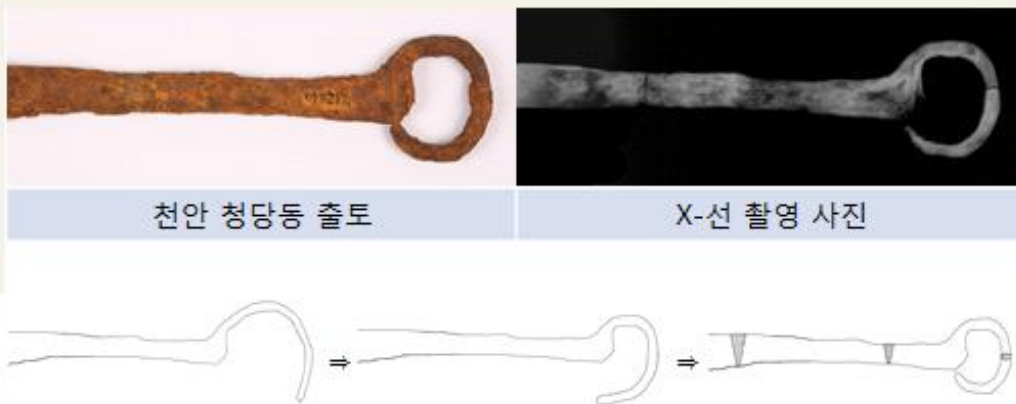
그림1. 완주 상운리 출토 철기



그림2. 대장간(김홍도 작품)

# <고대 무기 중 환두도의 발전 과정>

## 1) 1단계 (일체형) 제작과정



## 2) 2단계 (환두단접형) 제작과정



## 3) 3단계 (이체형) 제작과정



## 일본 교토 고쇼지 소장 사명대사 유묵 특별 공개(2)

유새롭 | 117호 조선1실 |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과 BTN불교TV가 공동으로 기획한 ‘일본 교토 고쇼지 소장 사명대사 유묵 특별 공개’전시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명대사의 외교승으로서의 면모, 조선과 일본의 평화를 이끌어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구도자 求道者라는 승려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 한 사명대사의 뜻이 담긴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지고 중생을 구제하러 속세에 노닐면서  
바닥없는 배를 타고 파도 위에 몸을 맡기네.”

이 글씨는 임진왜란(1592-1598) 때 의승군義僧軍을 이끈 승병장으로 잘 알려진 사명대사(1544-1610)가 임진왜란 후 전후 처리를 위해 일본에 갔을 때 교토 고쇼지의 승려 엔니에게 준 편지에 있는 시구입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의 전후 처리와 외교 교섭을 위해 왕명을 받고 1604년 일본으로 건너 가, 그해 12월부터 1605년 3월까지 교토에 머물렀습니다. 사명대사는 교토에서 승려들과 시문詩文과 불교 교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일본 정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때 사명대사가 교토 고쇼지의 승려 엔니와 교류하며 남긴 글이 바로 이번 특별 공개 대상이 되는 유묵입니다.

그 중 사명대사가 승려 엔니에게 ‘허응虛應’이라는 자字와 ‘무염無染’이라는 호號를 지어주며 함께 준 편지에는 역시 수행 정진뿐만 아니라 자호에 담긴 뜻을 마음에 간직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대혜선사의 글씨를 보고 감상을 남긴 글에서도 자신이 일본에 온 목적이 돌아가신 스승님(서산대사)의 뜻을 받들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남긴 유묵에는 승려로서 추구해야 하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보다 우선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 사명대사의 의지가 글 전체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국 권대승도權大僧都 원이圓耳 선사는 나라의 교사教師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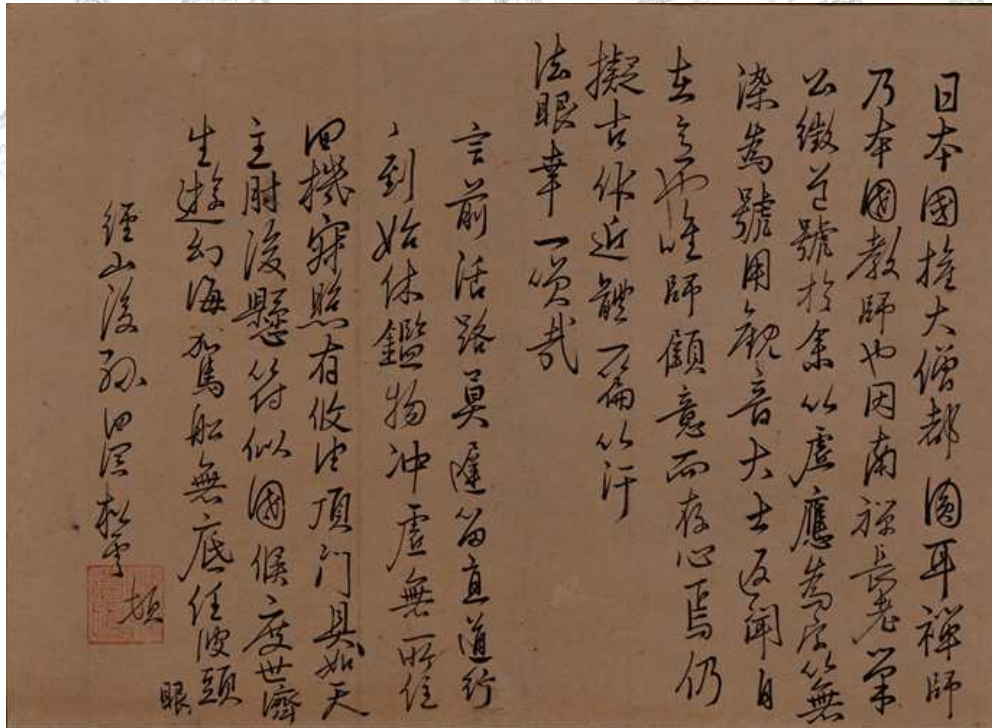


그림 1. 사명대사가 승려 엔니에게 준 글과 시

남선南禪의 장로長老인 소공巢公이 나에게 그의 도호道號를 지어줄 것을 청하였기에 자字는 허응虛應으로 하고 무염無染을 호號로 지어주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이 소리를 두루 듣고 살피는 것에는 걸림없다는 뜻이니, 스님은 그 뜻을 돌아보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옛날 기풍에 맞추어 시 한편을 지어 (스님의) 법안法眼을 더럽히니 (보고) 한 번 웃어주기 바랍니다.

言前活路莫遲留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활로에서 머뭇거리서 안 되네
直道行行到始休	곧바로 길을 가고 가다보면 비로소 그칠 곳에 이르리라.
鑑物冲虛無所住	만물을 비추어보면 텅 비어서 머물 곳이 없고
回機寂照有攸由	기틀을 되돌려 고요히 살피면 나아갈 곳이 있네.
頂門具眼如天主	정수리에 눈을 갖추니 천주天主[대자재천大自在天]와 같고
肘後懸符似國侯	팔에 부절을 매달았으니 제후와 비슷하네.
度世濟生遊幻海	세상을 건지고 중생을 구제하려 속세에 노닐면서
駕船無底任波頭	바닥없는 배를 타고 파도 위에 몸을 맡기네.

경산의 후손 사명 송운이 인사드립니다